

지역 소식 통

부안군, 내년 70세 이상
어르신 목록비 지원

부안군은 2026년부터 고항사 랑기금을 활용한 어르신 목록 비 지원사업의 대상 연령을 기 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 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는 약 1,700명 가량 증가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사업 대상은 작은 목록탕이 없는 읍·면(부안읍 및 주산·행안·변산·백산면)에 거주 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사 회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입 소자 및 방문목욕 등 목록서비 스를 지원받는 어르신은 제외 된다. 목록비는 연 5만원을 부 안사람상품권카드에 충전해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 고 목록비 지원금은 협약업소 (건강나라, 새만금사우나, 관 광호텔 사우나, 변산해수욕)에 서 사용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2025년 종무식 개최

고창군이 지난 12월 31일 5층 대회의실에서 종무식을 열고 한 해 업무를 마무리했다. 오전 11 시에는 군정발원 유공 군민 시 상식인으로 고창군을 위해 애쓰신 군민들을 초청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표창패를 수여했다.

지역민방위대 업무 유공 분야 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 상한 김영삼(공음면)씨,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최우수 기 관으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고창군 수 박연합회를 비롯해 전북특별자 치도지사 표창 4명, 고창군수 표창(군정발전 유공 군민 등) 38명이 수여받았다.

오후에는 고창군수를 비롯한 국·실·관·과·소장 및 읍·면장 등 전 직원 20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유공 공무원 표창, 송년사 등으로 종무식이 진행됐 다.

특히, 팀 화합으로 군정발원에 기여한 공적이 큰 조직을 선발 하는 ‘활력고창상’에는 도민체 전TF팀(대상), 도시공원팀(최우 수), 도서관팀(우수), 하수도팀 (장려), 북구지원팀(장려) 등 5 개 팀이 최종 선정돼 표창을 받 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2025년 정읍 빛낸 적극행정 유공자

‘시니어닥터 지역주치의제도’ 정읍형 의료모델 우뚝… 임경수 고부보건지소장 포상금 기부

정읍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니어닥터 지역주치의제도’가 농촌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혁신 모델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이 제도를 현장에서 성 공시킨 주역 임경수 지소장이 포상금 전액을 기부하며 적극행정의 참뜻을 실천해 감동을 주고 있다.

이번 정책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농 촌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시니어 의사를 직접 채용해 지역 주치의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 를 구상하면서 시작했다. 이 시장은 2024년 당시 정읍아산병원장으로 재 직 중이던 임경수 원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의료의 절박한 현실을 설명 하며 지역 주치의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정책적 설득과 현장의 공감 이 맞물리며 탄생한 ‘시니어닥터 지 역주치의제도’는 단발성 진료를 넘어 상담과 관리, 연계로 이어지는 지속 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발판이 됐다.

특히 고부보건지소에서 1년여간 근무해 온 임경수 지소장은 제도가 종



이 위에서만 머물지 않고 주민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

고령 주민들이 병명 대신 “어지럽다”거나 “숨이 찬다”는 식의 생활 언 어로 표현하는 특성을 고려해 상담 시간을 늘리고 환자의 상태를 세밀하 게 기록하는 맞춤형 대응을 실천했 다. 그 결과 의료진에게 전달되는 정 보의 질이 높아졌고, 진료 연계의 정 확도와 속도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됐 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장의 가장 큰 변화는 의료 접근성

의 실질적인 개선에서 나타났다. 고 부면은 인근에 약국이 없는 농촌 지 역이라 진료 후 처방을 받아도 약을 구하기 위해 다시 이동해야 하는 불 편이 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경 수 지소장은 보건지소 내 처방약 구 비 품목을 기존 20종에서 36종으로 대폭 확대하는 운영 체계 개선을 단 행했다. 이제 주민들은 진료 후 추가 이동 없이 필요한 약을 즉시 제공받 을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치료 이행을 향상과 주민 만족도 증대로 이어졌 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는 임경 수 고부보건지소장을 ‘2025년 정읍시 를 빛낸 최고의 적극행정 유공공무 원’으로 선정하고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임 지소장은 포상금 전액 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선포 기탁해 주위의 귀감이 됐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정 책을 발굴해 성과가 지역 공동체의 신뢰로 이어지는 적극행정의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송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무리

사업비 30억원 투입 · 총연장 483m 구간 도로→ 폭 12m 왕복 2차선 도로로 확장

정읍시가 송산동 순정축척에서 송령 교를 잇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마무리하며, 좁고 위험했던 통행 환경 을 쾌적한 왕복 2차선 도로로 탈바꿈 시켰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30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 업은 총연장 483m 구간의 비좁은 기 존 도로를 폭 12m의 왕복 2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지난 3월 본격적으 로 착공했다.

기존의 도로를 폭이 4~5m에 불과해 차량 두 대가 서로 비켜 가기 어려웠 으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보행자들이 늘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았던 곳 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로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보행자 전용 도로를 신설해 보 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

특히 시는 단순히 도로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 기반시설을 종합적 으로 개선했다.

공사 과정에서 노후화된 상·하수도 관을 새것으로 교체해 주거 환경을 정 비했으며,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해 가 로등도 새롭게 설치했다. 이를 통해

교통 흐름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인근 상가와 주거지역에 대한 접근성도 크 게 향상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도로공사 준공 으로 오랜 시간 통행에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 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하 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정읍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민·관이 함께 지키는 안전한 정읍…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 시상

정읍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시청과 민간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현 장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 7 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며 안전 문 화 확산에 나섰다.

이번 표창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과정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낸 유공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

중심의 재해 예방 활동을 지역 전체로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대상자로는 정읍시청 소속의 미래산업과 전수회 주무관, 자원순환 과 정민 주무관, 농업정책과 양승현 주무관이 선정됐다. 민간 사업장 부문에서는 (주)안전관리기술원 이종만 대 표이사, 정읍아산병원 서동식 직업환 경의학과장, 하립 정읍공장 전영수 부

장, 동원페이퍼 진종협 이사가 각각 선정돼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왔다. 표창을 받은 수상자들은 이번 시상을 계기로 시청과 민간 사업 장의 재해 예방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 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성과 창출 ‘활력고창상’ 시상

대상 -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도민체전TF팀 선정
최우수 - 도시디자인과 도시공원팀 · 그 외 3팀 시상

고창군은 조직 내 성과 창출과 협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활력고창상 5 개팀’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활력고창상 우수팀으로는 △체육청소 년시설사업소 도민체전TF팀(대상) △ 도시디자인과 도시공원팀(최우수) △ 문화예술과 도서관팀(우수) △상하수 도사업소 하수도팀(장려) △안전총괄 과 북구지원팀(장려) 등 총 5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 도민체전TF팀(팀장 강한수)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생활체육 축제인 제2회 전북도민체전과 제19 회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관내 체육시 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체육행사 추진으로 고창군 이미지 향 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최우수상 도시공원팀(팀장 유철호)은 도시디자인과 핵심 사업인 ‘고창 꽃정원 조성 단지 조성’을 주도해 관 광활성화 기틀을 마련했고, 모양상제 와 연계한 꽃정원의 다양한 행사 추 진과 양대 체전 화해연출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품격을 높여 고창을 찾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선정됐다.

우수상 도서관팀(팀장 김선환)은 고 창황윤석도서관 개관 준비과정에서 고창의 특색을 담은 공간구성을 조성 했고,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화 프로그 램 및 다양한 행사 운영으로 군민 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했다.

장려상 하수도팀(팀장 나운제)은 공 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5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 및 국가에 산 확보로 농어촌마을 쾌적한 생활환 경 조성 및 군민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했다.

북구지원팀(팀장 김성근)은 재해예 방사업 추진 우수기관 표창 수상 및 2026년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신 규사업 공모(와촌지구, 대동지구) 선 정(총사업비 700억원) 등 자연재해로 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고창군수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행안부 을지연습 우수기관 선정

전국 최고 수준 위기관리 역량 · 전시 대비태세 입증

정읍시가 지난 8월 실시된 ‘2025년 을지연습’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위 기관리 역량과 전시 대비태세를 입증 하며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을 수상하 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실천 중심의 위기관리 능력과 철저한 전시 대비 체계 구축, 그리고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연습 기간 시는 전시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공무원 비상소집, 최초 및 일일 상황 보고, 전시 직제 편성, 기관 소산·이동 훈련 등 법정 필수 과제를 충실히 이행했다. 특히 비상소집 발령 시 응소를 100%를 달성하며 실 제 위기 상황에서도 조직 전체가 즉 각 대응할 수 있는 신뢰성을 확인했 다. 훈련을 주재한 이학수 시장은 비 상소집부터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도 상연습까지 전 과정을 지휘하며 지 휘·통제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주민들의 실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체험형 훈련도 빛났다. 이 시장 이 직접 주민 대피 시범 훈련을 이끌 었으며, 여성민방위대와 자율방재단, 일반 시민 등 60여명이 참여해 라디오 청취 요령과 민방위 장비 작동법, 심

폐소생술 교육 등을 병행했다. 아울러 시 전역에 대피 안내 요원 130여명을 배치하고 23개 읍·면·동에서 43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자체 훈련을 실시해 지역 단위의 대응 역량을 실 질적으로 끌어올렸다.

민·관·군·경·소방이 함께하는 합동 훈련도 한층 견고해졌다. 군·경 합동 교통통제소를 설치해 긴급차량 의 비상 차로 확보 훈련을 전개했으 며, 주요 사거리마다 인력을 배치해 재난 시 구급차와 소방차가 지체 없 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는 주민들에게 재난 상황에서의 차 량 양보와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인 식시키는 교육적 효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연습에서는 국가 중요 시 설인 교정 시설을 대상으로 한 드론 (무인기) 테러 모의훈련이 주목받았 다. 경찰과 군부대, 소방 등 합동 인력 90여명과 장비 19대를 투입해 무인기 탐지부터 초기 대응, 탈주자 검거까지 전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완벽히 소 화했다. 이는 드론 기술을 활용한 새 로운 복합 위험에 대응하는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으며 지역 안보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켰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